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서 “당신이 진정 오실 메시아입니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주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11:5 **맹인(소경)이 보며 못 걷는 사람(얕은뱅이)이 걸으며 나병환자(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고 있는 온갖 저주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 시려고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온갖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2:22-23 **볼지어다 내가 그(우상숭배하고 있는 자)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우상숭배하고 있는 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우상숭배하고 있는 자)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둘째, 이 청년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시기가 하나님의 경륜상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이 나면서부터 얕은뱅이였던 청년은 **지금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려 할 때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들을 말렸습니까?

행14:15-17 **이르되 여러분이여(사람들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우상숭배의 행위]을 버리고 취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회개하게) 함이라 16 하나님이 지나간 세 때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끝**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길을 가는 것을 묵인하셨**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감취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주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선한 일을 해 오셨고,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연계사’**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인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니, 이방인들에게도 자연계사 즉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어 결실을 맺도록 선한을 행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그 저주와 사손 3~4대까지 나타나게 함으로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다음번 2차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또 이방인들로 가득찬 **아테네에 갔**

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를 설교하였습니다.

행17:30-31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시 회개하라 하였으니 31 이는(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세상)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예수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주셨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는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든지 정확히 알고 있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과거에 자신이 모르고 우상숭배했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A.D.30년 즉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소식 즉 **복음이 선포되던 시기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이 청년이 바울로부터 이러한 복음을 들은 후에 “이제는 똑바로 일어서라” 는 바울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연계사만으로 어렵듯하게 하나님을 알리신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밝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 복음을 들은 자는 **이제는 유대인 이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살게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롬1:16-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생명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조상대대로부터 우상만을 숭배함으로 온갖 저주를 받아서 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 회개복음과 천국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2가지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첫째, ☐☐☐ ☐☐☐☐☐ ☐☐☐☐ ☐☐☐☐☐☐☐ 것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지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갈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저주로부터 즉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저주가 더 이상 내게 붙어있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주로 하여금 떠나가도록 명령하면 그 저주는 이제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 ○○○○ ○○ ○○○ ○○○○ ○○○ ○~~ 예
~~○○○○ 인하여, ○ ○○○ ○○○○ ○ ○○○ ○○○ ○○~~
~~○○ ○○ ○○○○~~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제는 저주의 사슬을 네 스스로 끊어버
리고 새 창조의 기적으로 살아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
러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저주가 예
수님으로 인하여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저주로
인하여 생긴 하반신마디가 고쳐질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그가 “일어나 걷는지라”라고 되어있는데, 원
문을 직역해보면, 상당히 실감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
습니다. 용수철처럼 튀어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똑바로 세계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어난 다
리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두 다리에 신경이 살
아나고 힘줄이 그 기능을 작동하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곧 걸을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가 누리게 될 특권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4. 영적 법칙

○○○○ ○○○ ○○○ ○○○○ ○○○ ○○○○○ 튀어오
○○ 것입니다. ○○○ ○○○ ○○ ○○○○○ 것입니다. ○
○○○ ○○○○○ ○○○ ○○○ ○○○ ○○○○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복음의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주
의 종들의 말을 듣는 즉시 그대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벌떡 일
어나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
다. 가난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을
빌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벌떡 일
어나는 것입니다.

5. 복과 결단

1)복

가. 헌신자가 받는 복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때 저주가 끝났습니다. 비록 자
신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
어졌기에,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받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날 자신에게 내려오고 있던 과거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
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바보 멍청이 병신”이라
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들에게 손을 빌리지
않아도 내 힘으로 떳떳이 일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기문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 청중의 더 큰 복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루스
드라의 과거의 얕은뱅이처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는
데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른채, 나의 운명이려니 하
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가 유대인
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만 하면 온갖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끝나는 시대입니다. 언
제 끝납니까? 그날 그 즉시 끝납니다. 지금 끝납니다. 지금
고쳐줍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놀라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유대인처럼 지금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로만 알고
있다면, 당신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다 자신의 부
모의 죄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어있고 내가 저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는 예수님이 오셨기에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서 하나님
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하나
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2)결단

가. 결단의 필요성과 방법

율법시대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이방인처럼 아무것도 모른채
타고난 운명이려니 하고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복음의 시대에
맞게 사십시오. 오늘도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종들이 말이
떨어지면 떨어짐과 동시에 용수철처럼 일어나십시오. 그냥 믿음
으로 반응하십시오. “네가 질병에서 놓였다”고 하시면 그대
로 믿어버리십시오. 아니 “내가 내 병에서 놓였습니다.”라
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율
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질병과 악함도 내 것이 아닌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저
주와 가난도 옛말이지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내게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대한 놀라운
일들만이 창출되는 시대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
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의 시대인 것입니
다.

나. 결단의 축복

그러면 즉시 조상의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면 즉시 가난
의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면 즉시 질병의 저주에서 놓임받
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얕은뱅이가 걸어다닙니다. 정신이 온
전해집니다. 이해력이 증가합니다. 믿음의 성장합니다. 영적
인 귀가 열려집니다. 믿음이 진일보합니다. 질병이 오더라
도 쫓아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복음의 시대를 들어온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
다. 그리고 이제는 아직까지 이러한 저주의 사슬에 있는 자
를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알려주십
시오. 그래서 그들의 저주도 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자의 명령과 선포〉

1) 감사와 회개

주여, 새 시대에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조상들의 죄값으로부터 자유하는 시대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면 지금도 창조의 기적을 맛보는 시대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과거의 죄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복음의 일꾼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주소서.

2) 장자권 누림의 결단

주여, 이제는 과거의 저주를 끊어버리며 살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새 창조의 기적을 맛보며 살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복음의 시대니만큼 믿음으로 반응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운명을 벗어버리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나이다.

3) 장자권의 누림, 명령과 선포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어 저주 가운데 살게 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가 예수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과 불신의 영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과거에서 놓임받을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4) 오늘의 말씀의 핵심

1.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우상숭배의 저주를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2. 오직 하나님의 율법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만이 저주의 원인과 결과를 알고 살았었구나.

3.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저주에서 놓여 새 창조의 기적과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4. 지금의 시대를 밝히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매우 귀한 것이로구나.

5. 복음의 일꾼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창조와 회복의 기적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구나.